

June 12 온유, 주님께 길들여지기

• 민수기 12:1-3; 시편 37:7-11

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게서 비방을 받았습니다. 표면상으로는 구스 여인과
의 결혼이 문제였지만, 논점은 곧 모세의 지도력으로 옮겨 왔습니다. 모세가 두 사
람의 비방에 대해 반응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. 다만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
보다 더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. 성경은 우리에게 ‘분노를 다스리라’고 말합니다.
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‘프라오테스’ 역시 사나운 들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를 가
리킵니다. 길들여진다는 말에는 오랜 인내와 훈련의 과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.
그렇다고 불의에 대해 눈감는 것이 아닙니다.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
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온유입니다.

왜 온유해야 할까요? 원수를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, 하나님께 있기 때
문입니다(롬 12:19). 모세가 본래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. 혈기로 인해 살
인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(출 2:11-12).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욕을 따르지 않게 되
었습니다.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통하며 어느새 하나님을 닮아 가고 있습니다. 두
사람의 비방은 모세를 향했지만, 그 비방을 듣고 행동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
다. 결국,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(민 12:10). 모세는 화를 참는 것에서 그치지
않고, 미리암을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(민 12:13).

예수님은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. “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
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”(눅 23:34). 예수님은 십자가 주변을
둘러싼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. ‘길들여지는’ 것은 경건의(Godly) 훈련을
통해 가능합니다.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. 날마다 하나님을 닮
아 가며 분노와 보복의 감정을 내려놓을 때, 그리스도인의 삶에 온유의 열매가 맺
힙니다.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반응하며 온유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
나라를 맡기십니다(마 5:5).

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?

- ① 나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까?
- ② 하나님이 듣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?